

頌 壽 辭

지금까지 우리 環境法學會를 이끌어오신 吳錫洛 顧問, 金鐵容 會長, 그리고 金元柱 副會長께서 금년에 華甲을 맞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본 학회가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 環境法學의 생성과 발전의 산 證人이시며, 아울러 우리 法學界의 先導者이셨습니다. 새삼 세월의 빠름을 느끼면서 여러 회원들과 더불어 마음으로부터 華甲을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도 젊은 사람과 꼭 같이 건강하게 學問 活動과 社會 活動을 계속하시는 것을 보면, 還甲을 맞으셨다는 실감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변호사로서 교수로서 社會 現場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還甲이라는 말이나 頌壽辭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 분 선생님들께서는 幼年時節부터 훌륭한 家門의 엄한 家風속에서 오늘의 정신적 바탕을 닦으셨습니다. 그 후 학창시절에는 우리나라의 名門학교에서 修學하신 결과 學究的이며 선비적인 오늘날의 風貌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學界와 實務界에서, 또 國內 뿐만 아니라 國外에서도 부지런함과 유능함을 보이시면서 맡으신 바 所任을 완수하시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진력하고 계십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환경법학회가 창립되던 70년대에는 경제성장 내지는 개발위주의 정책이 환경보존정책을 압도하던 시대였습니다. 세 분 선생님들께서는 그 때에 이미 미래를 내다보는 慧眼을 가지셔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내다보고 환경법학회를

창립하신 선각자들인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環境法 발전의 바탕을 마련하시고, 이를 꾸준히 가꾸어 온 1세대의 先導者로 기록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우리나라 法曹文化의 선진화와 법학의 발달에 몰두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後學들은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後學들은 선생님들로부터 항상 인정미와 인간미를 느낄 수 있으며, 동료·後學들을 지도편달하시는 일에도 정성을 쏟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後學들은 선생님들의 高潔하신 人品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가지로 존경해 마지않던 제가 선생님들의 회갑을 맞아 頌壽辭를 쓰게 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아무쪼록 萬壽無疆하시고, 지금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시기를 祈願합니다.

1993년 12월 11일

金 亨 徹